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권 2호 (2022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차수빈, 장혜인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수 감각 정확도와 심적 표상: 수직선 추정 과제를 중심으로	임수현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읽기 부진과 인지적 결손	조종열, 김영숙, 박순길, 김봉희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김태연, 최은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이화진, 임지영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 매개효과	구소진, 박은영
유아의 놀이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지영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한빛, 이훈진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손영지, 이승연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22년 6월 15일
발행일 : 2022년 6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노수림(충남대학교)

편집위원 : 강연욱(한림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박유정(서울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송주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신희영(전북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심사위원 : 조수현(중앙대학교) 맹세호(가톨릭대학교) 문영경(부산대학교) 백현아(광주과학기술원)
 최영은(중앙대학교) 권미경(유타대학교) 한소원(서울대학교) 이새별(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김은영(순천향대학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경선(성신여자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이정윤(성신여자대학교) 오인수(이화여자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윤진영(세명대학교)
 이승희(동아대학교) 장경은(경희대학교) 정명숙(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현지(삼성전자)
 이수란(백석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하정희(한양대학교) 이운영(충남대학교)
 장은영(호남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35, No. 2

June 15,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ditor : Soo 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Yeonwook Kang(Hallym Univeristy)

Yenosoo Kim (Jeonju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ijung Seo(Jeju National University)

Seung-yeon Lee(Ewha Womans University)

Giveon Kim(Chung-Ang University)

Eun Young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Youje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uiyoung Sh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jung Choi(Southern Illinois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35 권 제 2 호 / 2022. 6.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차수빈, 장혜인 / 1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수 감각 정확도와 심적 표상: 수직선 추정 과제를 중심으로	임수현 / 25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읽기 부진과 인지적 결손	조증열, 김영숙, 박순길, 김봉희 / 45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김태연, 최은실 / 73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이화진, 임지영 / 93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 매개효과	구소진, 박은영 / 115
유아의 놀이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지영 / 133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한빛, 이훈진 / 157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손영지, 이승연 / 181

한국발달심리학회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Received: April 29, 2022
Revised: May 31, 2022
Accepted: June 2, 2022이한빛¹, 이훈진²
서울대학 대학생활문화원¹, 서울대학 심리학과/ 교수²교신저자: 이훈진
서울대학 심리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Th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E-MAIL:
hjlee83@snu.ac.krHanbit Lee¹, Hoon-Jin Lee²
Center for Campus Life & 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¹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²©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 및 202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성장기 동안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과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가 성인기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248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표출 정서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하였다. 남성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일부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그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성장기의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이 성인기의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발달적·치료적 개입의 방향과 한계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건강한 발달의 초석이 되기도 하고, 정신병리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 정서 발달이 시작되므로,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강조된다(Grusec, 2011). Eisenberg 등(1998)은 이러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자녀가 정서를 경험, 조절, 표현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정서 발달 과정을 정서 사회화(emotional socialization)의 발견적 모델(heuristic model)을 통해 설명하였다.

정서 사회화 이론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모가 개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와 연관된 직접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과 부모 자신의 정서적 표현이 주된 축을 이룬다고 제안하였다(Lunkenheimer et al., 2020). 아울러 부가적으로 양육 태도나 가치관 등 부모의 특성과 성별, 연령, 기질적 반응성 등 자녀의 특성이 정서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rris 등(2007)은 특히 부모의 특성 중 정서적인 경향성과 관련하여 관찰학습 및 모형화(modeling)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서 사회화 이론을 더욱 확장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특정 상황에서 느껴야 하는 정서와 이를 조절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암묵적으로 교육하게 되는데, 만약 부모가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찰학습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다(Guinta et al., 2020). 즉, 부모가 자주 전달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반응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김소중, 2022).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정서의 경우,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 보이는 부적절한 정서 표현과

환자의 예후의 관계에 대해 Brown(1959, 1962)이 제시한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라는 개념 하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출 정서란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정서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et al., 1972). 정서 사회화의 또 다른 축을 살펴보면, 자녀의 정서 경험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역기능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연관된 개념으로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이 제안되었다. 정서적 불인정이란 자녀가 특정한 정서를 내보일 때 부모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무시하거나 별하거나 그 중요성을 축소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Linehan, 1993).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은 가족 정서 환경의 구성요소이자 자녀의 모델링 대상으로 기능하게 된다(Morris et al., 2007; Stocker et al., 2007). 이때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를 어느 수준으로 지각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한데, 한순간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수준보다 만성적으로 지각된 역기능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이 이후의 심리적 문제와 더 깊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Zielinski, 2022).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부적절한 가정 내 정서 사회화와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서적 불인정이 비자살적 자해 등 충동적 행동 또는 폭력성 등과 관련된 외현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며(Eisenberg et al., 2001, Vieira et al., 2021), 한편으로는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Asarnow et al., 2001; Hooley & Gotlib, 2000). 표출 정서의 경우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O'Neal & Magai, 2005; Stocker et al., 2007), 특히 부모의 비난이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ienecke, 2020). 부모가 표출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 자녀는 모델링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충동적 정서 표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다(Buckholdt et al., 2014; Morris et al., 2007). Giunta 등(2020)의 최신 연구에서는 부모의 표출 정서 중 화, 짜증스러움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불안정을 포함하는 냉혹한 양육이 다양한 문화권의 9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 연관되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은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를 정서 사회화한다는 연구들은 양 부모가 사용하는 정서 단어와 관여하는 정서적 상황이 유사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Aldrich & Tenenbaum, 2006). 반면, 최근에는 부모의 성별 자체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성별-특징적인 패턴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heung et al., 2020).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더 반응적이며,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을 보인다고 밝혔다(Brand & Klimes-Dougan, 2010; Eisenberg et al., 1998). 자녀의 성별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슬픔, 불안, 분노 등의 정서 중 강화하거나 처벌하는 정서가 다를 수 있다(Zahn-Waxler, 2000). 더욱이 정서 사회화 과정에

서 발견되는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분노에 대해 더 크게 처벌하거나 축소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어머니의 경우 아들의 분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hortt et al., 2016). 즉, 부모나 자녀의 성별에 대한 구분이 충분하지 못했던 이전 연구 흐름에서 한 단계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적 불안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김소영, 김진숙, 2014; 최수미 등, 2012). Gratz와 Roemer (2004)에 따르면 정서조절곤란에는 정서의 수용, 정서의 자각과 이해, 충동적 행동의 조절 및 목표에 맞는 행동, 정서 반응 조절 및 정서조절전략의 활용이라는 네 요소가 포함된다. 성장기 동안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하지 못하여 강도 높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적응의 어려움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김소영, 김진숙, 2014; Butzlaff & Hooley, 1998; Krause et al., 2003). 특히 부모의 표출 정서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불안정은 이후에 자녀가 정서조절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높게 된다(최주영, 서경현, 2015; Morris et al., 2007). Buckholdt 등(2014)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기술과 자기효능감의 부족은 슬픔과 같은 정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잔류하게 만들어 내면화 문제로 이어지게 하며, 이전에 불안정하는 환경을 경험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

를 느낄 때 충동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이후 공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외현화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Buckholdt et al., 2014). 정리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은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부족, 비수용, 억제, 회피 등을 통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경로에서는 충동적 행동 조절 부족을 통해 과잉행동 등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rause et al., 2003; Morris et al., 2007).

한편, 신경증 성향 및 외향성과 같은 자녀의 성격적 변인이 청소년기부터 이러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Etkin et al., 2020, Watson et al., 2019). Castellanos-Ryan 등(2016)은 약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는 높은 신경증 성향과 낮은 외향성이, 과잉행동, 약물 남용 등의 외현화 문제에는 높은 외향성이 연관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성격특성의 성차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성향에서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Weisberg et al., 2011). 상기 결과들을 종합할 때, 자녀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을 통제한다면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이 적절한 정서 발달을 저해하여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표출 정서와 정서적 불인정이

정서 사회화의 두 축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가족 정서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Halberstadt, 1999; Stocker et al., 2007), 두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다루어보려는 시도가 부족했다. 특히 표출 정서, 정서적 불인정,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같이 일부 변인 간 관계만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예, Buckholdt et al., 2014; Eisenberg et al., 200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초기 성인기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정서 사회화 이론의 검증 및 확장을 시도하였다(그림 1). 또한, 부모 및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모형을 구성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상호작용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 특히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발달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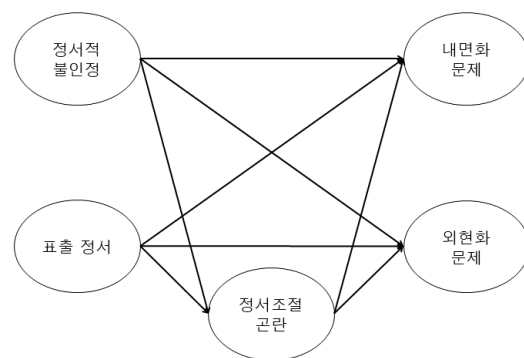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전 연구 절차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에 진행되었다(IRB No. E1807/003-003).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온라인 연구 참여 시스템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 2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2개를 제외한 24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소액의 사례금 또는 심리학 수업의 연구 참여 포인트를 선택하여 제공받았다. 참여자 중 남성은 97명(39.1%), 여성은 151명(60.9%)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2.13세(SD=3.56, 범위 18-38세)였다.

연구도구

지각된 정서적 불안정 척도(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

현재의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경험하는 정서적 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Zielinski(2018)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0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주 개발자인 Melissa J. Zielinski로부터 한국판 지각된 정서적 불안정 척도의 변안 허가를 받아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불안정을 측정하는 척도로 변안하였다. 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0-50점의 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1차로 문항들을 변안한 후에 임상심리

전문가 세 명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역번역한 문항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항에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등이 포함된다. Zielinski(2018)의 연구에서 전체 10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9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96,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95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수정지수를 활용한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에 대한 척도의 적합도는 $\chi^2=85.898$, $df=31$, $p<.001$, CFI=.976, TLI=.965, RMSEA=.085로 나타났고, 어머니에 대한 척도의 적합도는 $\chi^2=98.882$, $df=31$, $p<.001$, CFI=.967, TLI=.953, RMSEA=.094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섭식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Robertson 등(2013)이 개발한 유사 척도인 ICES(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및 우울, 불안, 공격성과 중간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r(248)=-.44\sim-.75$, $p<.01$.

표출 정서 수준(Levels of Expressed Emotions: LEE)

Cole과 Kazarian(1986)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배현석(2000)이 변안 및 타당화 하였다. Gerlsma 등(1992)이 예/아니오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하정진(2020)이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과거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점수를 표시하며,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는 화를 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고 비난했다' 등이 포함된다.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표출 정서를 의미한다. 하정진(202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에 대한 척도에서 .96,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9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이다.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동 통제 곤란,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문항에는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는 하위 요인에 따라 .76-.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 충동통제 곤란은 .80,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은 .80,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은 .93,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79,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은 .88,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은 .9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성인 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Adult Self Report: K-ASR)

Achenbach와 Rescorla(2003)이 개발한 성인 행동평가척도로 김민영 등(2014)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의 적응상태 및 문제행동을 스스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한 총 134문항의 3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123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문제의 하위 요인에는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에는 공격 행동, 규칙위반, 과잉관심 유도가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다툼을 많이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기존의 요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위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문항 묶음을 통해 활용하였다. 김민영 등(2014)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는 .96, 하위 요인에 따른 내적 합치도는 .53-.9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 하위 요인에 따른 내적 합치도는 .66-.89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척도(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9)가 개발한 척도로, 유태용 등(2004)의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신경증 성향,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요인을 각 10개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쉽게 불안해진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는 신경증
성향에서 .87, 외향성에서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0.0(IBM Corp., 2011),
AMOS 21(IBM Corp., 2012), SPSS Macro
Process 3.2(Hayes, 2018), M-plus 7.0(Muthén
& Muthén, 1998-2015)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 묶음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모형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모형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χ^2 과 함께 CFI, TLI, RMSEA 지수
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 후로 정서적 불안정과 표
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살
펴보았다. 모수치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포함한 모형으로, 김수영
(2016)이 제안한 방식을 차용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제
거한 대안 모형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적절한 모형
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총 2000회의 부트스트랩
(bootstrap)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정서적 불안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를 산출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의 절
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지만(Curran et
al., 1996), 외현화 문제의 요인인 규칙위반의 왜도
가 2.44이며 정서적 불안정, 표출 정서의 하위 요
인인 비난, 내면화 문제의 하위 요인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의 분포가 과도한 정적편포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어 로그 변환한 값을 변인들의 성별 간
t 검정과 상관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정서적 불안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내면화 문제 및 하위 요인인 우울/불
안, 신체증상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23, p<.05$; $t=2.34, p<.05$;
 $t=3.66, p<.01$).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현화
문제 중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t=2.88,$
 $p<.01$).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외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
인 규칙위반과 통제 변인 중 외향성의 관계를 제외
한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48)=-.13\sim.76, p<.05$.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
니와의 관계 각각에 대한 결과는 표 2, 표 3에 제
시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N=248)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정서적 불인정	2.03	1.84	.99	.89	1.27	1.39	0.93	1.35
표출 정서	1.94	1.87	.55	.52	.83	.82	0.50	1.09
지지 부족	1.94	1.89	.55	.57	0.83	.78	.50	.85
비난	1.89	1.72	.58	.58	1.28	1.18	1.44	1.26
간섭	1.94	2.17	.56	.60	.58	.20	-.02	-.08
정서조절곤란	2.46		.68		.21		-.69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2.14		.60		.31		-.10	
정서적 명료성 부족	2.24		.85		.47		-.3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2.38		.99		.52		-.66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	2.74		1.03		.54		-.16	
충동통제 곤란	2.46		.77		.29		-.46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3.13		1.05		-.20		-.73	
내면화 문제	1.47		.34		.80		-.23	
우울/불안	1.52		.37		.84		-.03	
위축	1.42		.37		.96		.16	
신체증상	1.39		.43		1.23		1.01	
외현화 문제	1.28		.27		1.46		1.90	
공격행동	1.35		.32		1.07		.47	
규칙위반	1.17		.27		2.44		6.45	
과잉관심 유도	1.37		.39		1.13		.63	
신경증 성향	2.62		.74		.28		-.35	
외향성	3.19		.77		-.01		-.20	

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변인들인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가 기존에 보고된 요인 구조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 모형에 포함된 개별 문항들의 수가 많아,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항 묶음(item

parcelling) 방법을 도입하였다. 문항 묶음의 수는 세 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Little et al., 2013), 요인 알고리즘(1요인 분석 문항 묶음)을 통해 각 요인 당 세 개의 문항 묶음을 구성한 후 활용하였다. 모형을 구성한 후에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바에 따라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 아버지와의 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정서적 불안정	1																		
표출 정서	.74**	1																	
정서조절곤란	.74**	.71**	1																
내면화 문제	.51**	.57**	.72**	1															
외현화 문제	.40**	.46**	.48**	.42**	1														
신경증 성향	.30**	.39**	.31**	.27**	.47**	1													
외향성	.36**	.35**	.39**	.28**	.57**	.40**	1												
	.36**	.29**	.34**	.28**	.56**	.53**	.60**	1											
	.48**	.50**	.54**	.41**	.76**	.44**	.66**	.61**	1										
	.30**	.34**	.31**	.25**	.67**	.31**	.49**	.37**	.60**	1									
	.44**	.40**	.44**	.27**	.54**	.46**	.52**	.51**	.57**	.45**	1								
	.43**	.39**	.42**	.26**	.40**	.47**	.38**	.41**	.49**	.29**	.71**	1							
	.33**	.24**	.41**	.29**	.43**	.26**	.38**	.43**	.40**	.26**	.62**	.50**	1						
	.38**	.32**	.45**	.31**	.59**	.39**	.48**	.52**	.58**	.40**	.72**	.55**	.65**	1					
	.35**	.21**	.44**	.38**	.45**	.42**	.40**	.44**	.42**	.23**	.55**	.51**	.56**	.71**	1				
	.20**	.17**	.30**	.24**	.32**	.34**	.32**	.30**	.28**	.23**	.40**	.21**	.29**	.57**	.57**	1			
	.40**	.43**	.43**	.36**	.68**	.38**	.56**	.56**	.64**	.51**	.72**	.45**	.56**	.71**	.40**	.34**	1		
	-.25**	-.34**	-.22**	-.21**	-.29**	-.34**	-.20**	-.25**	-.31**	-.23**	-.40**	-.62**	-.22**	-.18**	-.12	.19**	-.31**	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 어머니와의 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하위 요인																			
정서적 불안정	1																		
표출 정서		1																	
정서조절곤란			1																
내면화 문제				1															
외현화 문제					1														
신경증 성향						1													
외향성							1												
정서적 불안정	.73**																		
지지 부족	.71**	.73**																	
간섭	.51**	.66**	.71**																
비난	.36**	.39**	.45**	.37**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32**	.44**	.33**	.26**	.47**														
정서적 명료성 부족	.32**	.30**	.34**	.26**	.57**	.40**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36**	.32**	.35**	.21**	.56**	.53**	.60**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	.40**	.42**	.47**	.29**	.76**	.44**	.66**	.61**											
충동통제 곤란	.23**	.27**	.34**	.35**	.67**	.31**	.49**	.37**	.60**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40**	.39**	.45**	.31**	.54**	.46**	.52**	.51**	.57**	.45**									
우울/불안	.41**	.39**	.41**	.26**	.40**	.47**	.38**	.41**	.49**	.29**	.71**								
위축	.34**	.26**	.41**	.28**	.43**	.26**	.38**	.43**	.40**	.26**	.62**	.50**							
신체증상	.40**	.36**	.50**	.34**	.59**	.39**	.48**	.52**	.58**	.40**	.72**	.55**	.65**						
공격행동	.40**	.28**	.47**	.27**	.45**	.42**	.40**	.44**	.42**	.23**	.55**	.51**	.56**	.71**					
규칙위반	.28**	.23**	.36**	.28**	.32**	.34**	.32**	.30**	.28**	.23**	.40**	.21**	.29**	.57**	.57**				
과잉관심 유도	.33**	.37**	.39**	.34**	.68**	.38**	.56**	.64**	.51**	.72**	.45**	.56**	.71**	.40**	.34**				
신경증 성향	-.20**	-.25**	-.15**	-.13**	-.29**	-.34**	-.20**	-.25**	-.31**	-.23**	-.40**	-.62**	-.22**	-.18**	-.12**	-.19**	-.31**		
외향성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x^2	df	x^2/df	CFI	TLI	RMSEA (90% C.I.)
모형 1	210.502	80	2.631	.971	.962	.081 [.068, .095]
모형 2	215.270	80	2.691	.968	.958	.083 [.070, .096]

구성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 각각의 적합도는 x^2 과 함께 CFI, TLI, RMSEA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CFI는 .90 이상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고, CFI, TLI는 .90 이상일 때 양호한 적합도로 보았으며, RMSEA는 .10 이하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라는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x^2=210.502$, $df=80$, $p<.001$, CFI=.971, TLI=.962, RMSEA=.08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모형 2)의 적합도는 $x^2=215.270$, $df=80$, $p<.001$, CFI=.968, TLI=.958, RMSEA=.083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15개의 측정변수가 5개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두 모형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적합도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와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간접경로를 포함한 구조모형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설정하고,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2000번의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형의 적합도는 $x^2=244.403$, $df=100$, $p<.001$, CFI=.970, TLI=.960, RMSEA=.076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모형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4개의 경로 중 가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아버지와의 관계

	x^2	df	x^2/df	CFI	TLI	RMSEA (90% C.I.)	비교	Δdf	Δx^2	채택 모형
연구 모형 0	244.403	100	2.444	.970	.960	.076 [.064, .088]				
대안 모형 1	244.429	101	2.420	.970	.960	.076 [.064, .088]	0대1	1	.026	대안1
대안 모형 2	244.541	102	2.397	.970	.961	.075 [.063, .087]	1대2	1	.112	대안2
대안 모형 3	246.236	103	2.391	.970	.961	.075 [.063, .087]	2대3	1	1.695	대안3
대안 모형 4	251.804	104	2.421	.969	.960	.076 [.064, .088]	3대4	1	5.568	대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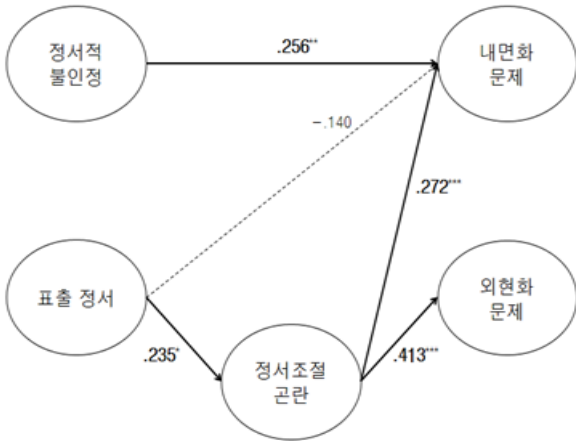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아버지와의 관계
* $p < .05$. ** $p < .01$. *** $p < .001$.

장 영향력이 작은 경로부터 제거하며 모형 간의 x^2 차이 검정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더 단순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은 대안모형 3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x^2=246.236$, $df=103$, $p < .001$, $CFI=.970$, $TLI=.961$, $RMSEA=.075$ 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x^2 검정 결과는 표 5에, 채택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채택된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잠재변인 간의 직접 경로 중 표출 정서에서 정서조절곤란에 이르는 경로(= .235, $p < .05$), 정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 .256, $p < .01$), 정서조절곤란이 내

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 .272, $p < .001$; = .413, $p < .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잠재변인 사이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확인하였다. 간접효과 중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형의 적합도는 $x^2=251.234$, $df=100$, $p < .001$, $CFI=.967$, $TLI=.956$, $RMSEA=.078$ 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모형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5개의 경로를 모두 제거하는 경우 정서적 불인정 변인이 모형에서 제거되므로, 가장 영향력이 작은 경로부터 제거하며 모형 간의 x^2 차이 검정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더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은 대안 모형 3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x^2=252.604$, $df=103$, $p < .001$, $CFI=.967$, $TLI=.957$, $RMSEA=$

표 6. 부트스트랩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

경로	추정치	S.E.	95% C.I.	
			상한	하한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04	.021	-.031	.039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06	.032	-.047	.058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64	.032	.011	.116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97	.040	.032	.162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어머니와의 관계

	x^2	df	x^2/df	CFI	TLI	RMSEA (90% C.I.)	비교	Δdf	Δx^2	채택 모형
연구 모형 0	251.234	100	2.512	.967	.956	.078 [.066, .090]				
대안 모형 1	251.501	101	2.490	.967	.956	.078 [.066, .090]	0대1	1	.267	대안1
대안 모형 2	251.917	102	2.470	.967	.957	.077 [.065, .089]	1대2	1	.416	대안2
대안 모형 3	252.604	103	2.452	.967	.957	.077 [.065, .089]	2대3	1	.687	대안3
대안 모형 4	268.315	104	2.580	.964	.954	.080 [.068, .092]	3대4	1	15.711	대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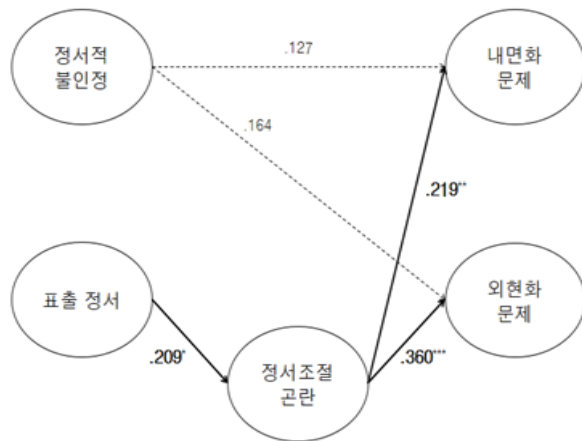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어머니와의 관계
* $p < .05$. ** $p < .01$. *** $p < .001$.

.077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x^2 검정 결과는 표 7에, 채택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채택된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잠재변인 간의 직접 경로 중 표출 정서에서 정서조절곤란에 이르는 경로(=.209, $p < .05$)와 정서조절곤란이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219, $p < .01$; =.360, $p < .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간접효과 중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불안정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부트스트랩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

경로	추정치	S.E.	95% C.I.	
			상한	하한
정서적 불안정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09	.019	-.008	.014
정서적 불안정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14	.029	-.010	.019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46	.025	.008	.065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33	.013	.079

응답자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

추가적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부모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딸, 아버지-아들, 어머니-딸, 어머니-아들의 4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모형에는 모두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이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에 아버지와의 관계 모형과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0.589$, $df=100$, $p<.001$, CFI=.979, TLI=.972, RMSEA=.063; $\chi^2=173.944$, $df=100$, $p<.001$, CFI=.973, TLI=.963, RMSEA=.070.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 모두 증분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RMSEA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chi^2=202.458$, $df=100$, $p<.001$, CFI=.947, TLI=.929, RMSEA=.103; $\chi^2=203.427$, $df=100$, $p<.001$, CFI=.947, TLI=.928, RMSEA=.103. 이는 응답자가 남성인 모형의 표본 수가 97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Kenny et al., 2015).

응답자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잠재변인 간의 유의미한 경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은 남성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beta=.504$, $p<.001$; $\beta=.353$,

$p<.05$, 표출 정서는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274$, $p<.05$.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이 남성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beta=.339$, $p<.01$. 여성 자녀의 경우,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에서 부모님의 표출 정서와 여성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자녀가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이후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을 매개 변인으로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버지와의 관계 모형과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경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관계 모형에서 정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에서 정서적 불인정의 영향은 어느 경로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가 지지해주지 않을 때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표 9.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추정치	S.E.	95% C.I.		
			상한	하한	
아버지 - 딸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83	.050	.010	.103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20	.058	.017	.123
어머니 - 딸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53	.038	.002	.090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46	.005	.108

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강지현, 2019; Krause et al., 2002). 그러나, 정서적 불안정의 개념과 유사하게 자녀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부모의 강요 및 통제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통제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의 통제는 고유의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Lansford et al., 2014). 정서 사회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일상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애정 표현은 어머니만큼 빈번하지 않다(Cassano et al., 2007; Cherry & Gerstein, 2021).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강완숙, 2000), 아버지의 정서적 불안정이 긍정적 정서 교류 경험으로 완충되지 못한 점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자주 간과되어 왔기에, 이러한 부모간의 차별적인 영향력은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표출 정서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는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출 정서가 직접적으로 문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정서조절곤란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출 정서를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최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Hooley와 Gotlib (2000)은 표출 정서가 단순히 상황적인 스트레스에서 더 나아가 자녀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표출 정서에 노출된 자녀가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행동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을 지지한다(Eisenberg et al., 1998; Morris et al., 2007).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적 불안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일부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도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여성 자녀의 경우 부모의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성 자녀에 비해 남성 자녀에서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과 표출 정서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직접 경로가 더 많았으며, 특히 아버지와 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딸보다 아들이 양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가설을 지지한다(Brand & Klimes-Dougan, 2010; Eisenberg et al., 1998). 여성 자녀의 경우,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치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초기 성인기 여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일 때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성장기의 가족 내 정서적 경험이 성인기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적응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나,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의 확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성장기의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이 미치

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정서 사회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Halberstadt, 1999; Stocker et al., 2007), 두 중심 축인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를 하나의 모형에서 다루어보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문제 행동 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여러 변인의 상호관계를 한 모형 내에서 다루었으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남성적 성역할의 모델로서만 조명받아왔다면(Miller, 2013), 아들과의 건강한 정서적 교류를 늘리면서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비난 등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안된다. 또한, 양 부모 모두 아들의 적절한 정서 표현에 대한 격려와 수용을 보인다면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모 스스로의 정서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딸이 모델링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자각, 수용하고 정서적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여 정서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모가 적절한 정서조절방략을 습득하고 훈련하여 모델링 기회를 제공한다면 딸의 정서 사회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표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가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표본 수가 부족하여 성별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는 무선 표집 과정에서 균형화(balancing)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기인하며, 각 성별 당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한 후 모형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가 횡단연구로 이루어졌으나,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단기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기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단연구를 통해 가족 내 정서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하며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는 성인 자녀가 성장기를 회고하며 당시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억의 왜곡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종단연구 중 일정한 간격으로 변인 측정을 실시한다면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정서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하위 요인 간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들의 대다수가 척도 제작 시에 보고된 요인의 구조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항 묶음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일례로 내면화 문제에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포함되는데, 요인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는 문항 묶음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각각 어느 요인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출 정서의 3요인, 정서조절곤란의 6요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각 3요인을 구분하여 각 요인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서적 불안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한 모형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여 발달적, 치료적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완숙, 유안진 (2000). 지각된 부/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8), 69-84.
UCI : G901:A-0001411675
- 강지현 (2019). 중학생 자녀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인지 발달중재학회지**, 10(4), 125-164.
<http://dx.doi.org/10.21197/JCEI.10.4.6>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http://dx.doi.org/10.15842/kjcp.2002.21.2.015>
- 김민영, 김영아, 이진, 김혜진, 오경자 (2014). 한국판 ASR(성인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615-634.
<http://dx.doi.org/10.15842/kjcp.2014.33.3.009009>
- 김소영, 김진숙 (2014).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정서조절이 아동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5(3), 1257-1276.
<http://dx.doi.org/10.15703/kjc.15.3.201406.1257>
- 김소중 (2022). 자녀가 지각한 주양육자의 정서표현성과 정서무효화가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UCI : I804:47023-200000607874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 배현석 (2000). **정신과 환자가 지각한 가족 표출정서의 한국판 척도개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UCI : G901:A-0004905941
- 유태용, 이기범, Ashton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UCI : G704-000424.2004.18.3.003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UCI : G901:A-0001557047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http://dx.doi.org/10.15842/kjcp.2007.26.4.012>
-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내적 증상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 매개효과에 관한 5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3**(3), 1277-1293.
<http://dx.doi.org/10.15703/kjc.13.3.201206.1277>
- 최주영, 서경현 (2015). 수용-거부 부모양육과 대 학생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정서표현 갈등 및 대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75-191.
<http://dx.doi.org/10.17315/kjhp.2015.20.1.010>
- 하정진 (2020). 행동 억제 기질과 가족 내 표출 정서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6**(4), 283-307.
<http://dx.doi.org/10.15842/cprp.2020.6.4.283>
- Achenbach, T. M., Dumenci, L., & Rescorla, L. A. (2003). DSM-oriented and empirically based approaches to constructing scales from the same item pool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3), 328-340.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203_02
- Aldrich, N. J., & Tenenbaum, H. R. (2006). Sadness, anger, and frustration: Gendered patterns in early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emotion talk. *Sex Roles*, **55** (11-12), 775-785.
<https://doi.org/10.1007/s11199-006-9131-y>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sarnow, J. R., Tompson, M., Woo, S., & Cantwell, D. P. (2001). Is expressed emotion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on or a nonspecific correlate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6), 573-583.
<https://doi.org/10.1023/A:1012237411007>
- Brand, A. E., & Klimes Dougan, B. (2010). Emotion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The roles of mothers and father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128), 85-100.
<https://doi.org/10.1002/cd.270>
- Brown, G. W., Birley, J. L., & Wing, J. K. (1972). Influence of family life on the course of schizophrenic disorders: A replicat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1**(562), 241-258.
<https://doi.org/10.1192/bjp.121.3.24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Buckholdt, K. E., Parra, G. R., & Jobe-Shields, L. (201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motion dysregulation through parental invalidation of emotions: Implications for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2), 324-332.
<https://doi.org/10.1007/s10826-013-9768-4>
- Butzlaff, R. L., & Hooley, J. M. (1998). Expressed emotion and psychiatric relapse: a meta-analysis. *Archives of*

- General Psychiatry*, 55(6), 547-552.
<https://doi.org/10.1001/archpsyc.55.6.547>
- Cassano, M., Perry Parrish, C., & Zeman, J. (2007). Influence of gender on parental socialization of children's sadness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210-231.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1.x>
- Castellanos-Ryan, N., Brière, F. N., O'Leary-Barrett, M., Banaschewski, T., Bokde, A., Bromberg, U., ... & Conrod, P. (2016). The structure of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and its common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5(8), 1039-1052.
<https://doi.org/10.1037/abn0000193>
- Cherry, K. E., & Gerstein, E. D. (2021). Fathering and Masculine Norms: Implications for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3(2), 149-163.
<https://doi.org/10.1111/jftr.12411>
- Cheung, R. Y., Chan, L. Y., & Chung, K. K. (2020). Emotion dysregulation between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ce*, 83, 62-71.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20.07.001>
- Cole, J. D., & Kazarian, S. S. (1988). The level of expressed emotion scale: a new measure of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3), 392-397.
[https://doi.org/10.1002/1097-4679\(198805\)44:3<392::AID-JCLP2270440313>3.0.CO;2-3](https://doi.org/10.1002/1097-4679(198805)44:3<392::AID-JCLP2270440313>3.0.CO;2-3)
- Di Giunta, L., Rothenberg, W. A., Lunetti, C., Lansford, J. E., Pastorelli, C., Eisenberg, N., ... & Uribe Tirado, L. M. (2020).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anger/irritability expressiveness, harsh parenting, and adolescents'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nine coun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6(3), 458-474.
<https://doi.org/10.1037/dev0000849>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https://doi.org/10.1111/1467-8624.00337>
- Etkin, P., Mezquita, L., López-Fernández, F. J., Ortet, G., & Ibáñez, M. I. (2020).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structure of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110063.
<https://doi.org/10.1016/j.paid.2020.110063>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1), 7-28.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1), 41-54.
<https://doi.org/10.1023/b:joba.0000007455.08539.94>
- Grusec, J. E. (2011). Socialization processes in the family: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 243-26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2.1208.131650>
- Halberstadt, A. G., Crisp, V. W., & Eaton, K. L. (1999). *Family expressiveness: A retrospectiv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 Philippot, R. S. Feldman, & E. J. Coats (Eds.), *Studies in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 (pp. 109-155).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is, France: E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 Hooley, J. M., & Gotlib, I. H. (2000). A diathesis-stress conceptualization of expressed emotion and clinical outcom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9(3), 135-151.
[https://doi.org/10.1016/s0962-1849\(05\)80001-0](https://doi.org/10.1016/s0962-1849(05)80001-0)
- Kenny, D. A., Kaniskan, B., & McCoach, D. B. (2015). The performance of RMSEA in models with small degrees of freedo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4(3), 486-507.
<https://doi.org/10.1177/0049124114543236>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
- Lansford, J. E.,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14). Mothers' and fathers' autonomy-relevant parenting: Longitudinal links with adolescent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1), 1877-1889.
<https://doi.org/10.1007/s10964-013-0079-2>
- Linehan,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https://doi.org/10.1037/a0033266>
- Lunkenheimer, E., Hamby, C. M., Lobo, F. M., Cole, P. M., & Olson, S. L. (2020).

- The role of dynamic, dyadic parent-child processes in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6(3), 566-577.
<https://doi.org/10.1037/dev0000808>
- Miller, E. D. (2013). Why the father wound matters: Consequences for male mental health and the father son relationship. *Child Abuse Review*, 22(3), 194-208.
<https://doi.org/10.1002/car.2219>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O'neal, C. R., & Magai, C. (2005). Do parents respond in different ways when children feel different emotions? The emotional context of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2), 467-487.
<https://doi.org/10.1017/S0954579405050224>
- Rienecke, R. D. (2020). Emotional Overinvolvement with Adolescents: a Problematic Construct?. *Current Treatment Options in Psychiatry*, 7(2), 162-185.
<https://doi.org/10.1007/s40501-020-00205-z>
- Robertson, C. D., Kimbrel, N. A., & Nelson-Gray, R. O. (2013). 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IC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hip to borderline personality symptomat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3), 402-410.
https://doi.org/10.1521/pedi_2012_26_062
- Shortt, J. W., Katz, L. F., Allen, N. B., Leve, C., Davis, B., & Sheeber, L. B. (2016). Emotion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risk and psychopathology: Mother and father socialization of anger and sadness in adolesc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Social Development*, 25(1), 27-46.
<https://doi.org/10.1111/sode.12138>
- Stocker, C. M., Richmond, M. K., Rhoades, G. K., & Kiang, L.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2), 310-325.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6.x>
- Vieira, A. I., Moreira, C. S., Rodrigues, T. F., Brandão, I., Timóteo, S., Nunes, P., & Gonçalves, S. (2021). Nonsuicidal self injury,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negative urgency, and childhood invalidation: A study with out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7(3), 607-628.
<https://doi.org/10.1002/jclp.23038>
- Watson, D., Ellickson-Larew, S., Stanton, K., Levin-Aspenson, H. F., Khoo, S., Stasik-O'Brien, S. M., & Clark, L. A. (2019). Aspects of extraversion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8(8), 777-794.
<https://doi.org/10.1037/abn0000459>
- Weisberg, Y. J., DeYoung, C. G., & Hirsh,

- J. B. (2011).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cross the ten aspects of the Big Five. *Frontiers in psychology, 2*, 178.
<https://doi.org/10.3389/fpsyg.2011.00178>
- Zahn-Waxler, C. (2000). The development of empathy, guilt, and internalization of distress: Implications for gender difference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xiety, Depression, and Emotion, 222-265*.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133585.003.0011>
- Zielinski, M. J., & Veilleux, J. C. (2018). 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novel measure of current emotion in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30*(11), 1454-1467.
<https://doi.org/10.1037/pas0000584>
- Zielinski, M. J., Veilleux, J. C., Fradley, M. F., & Skinner, K. D. (2022). Perceived emotion invalidation predicts daily affect and stressors. *Anxiety, Stress, & Coping, 1-15*.
<https://doi.org/10.1080/10615806.2022.2033973>

Th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Hanbit Lee¹

Hoon-Jin Lee²

Center for Campus Life & 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¹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²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young adults. Based on a sample of 248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validation, expressed emotion, emotional dysregulation,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clarifi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paternal emotional invalidation affected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while emotional dysregu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expressed emo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For male participants, some direct path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leading to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while, for female participants,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ed the path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 *emotional invalidation, expressed emotion, emotion dysregulation, internalization, externalization*